

<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>

빌립보서 3:10-14 / 새찬송가 323 (통일 355) 부름 받아 나선 이 봄

1.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

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도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(마6:34).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인생은 덧없습니다(약4:14).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내일 자랑할 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(잠27:1).

2.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내일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

그러니 내일 일을 알려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의지해야 합니다(롬8:14). 그리하면 성령이 당신을 인도해주십니다. 잠언3장 6절은 ‘마음을 다해’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(잠3:5-8).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. 또 ‘범사에’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.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서로 협력케 하여 선을 이루실텐데 사람은 이에 대해 절대 이해할 수 없으니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(욥 42:1-3).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스스로 알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(욥42:5,6).

3. 그러나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듯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

내일 일을 모르는 만큼 더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. 그 꿈과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뤄낼지 알 수는 없습니다.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. 우리는 알려하지 말고 단지 그 목표를 보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.

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교회에 대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(고전3:6-8). 자라게 한다는 것은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이 이뤄지는 과정을 말합니다. 이 과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.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.

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 목표와 비전은 ‘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’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’ 즉 ‘영광스러운 부활’입니다(빌3:14). 바울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알 수 없으나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,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

니다(빌3:11).

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목표를 세운 바울은 이제부터는 오직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할 뿐임을 고백합니다(빌3:12).

4. 가장 적극적인 삶을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

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바울도 본문13절을 통해 자신의 일이 주님께서 시키신 일임을 고백합니다(빌4:13).

이처럼 주님이 시키신 일은 결국 주님이 이루시기에 방법을 몰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믿음이 가장 적극적이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얹매이지 말고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!

< 적용 & 실천 >

우리는 우리 힘으로 인생을 예측하며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우리의 목표를 천국에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. 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 하며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합시다.